

여성노인의 시간사용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양 영 순(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2007년 우리사회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육박하고 있으며(2005년 9.1%, 통계청 인구 총 조사), 불과 10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1997년 노령화지수=28.6,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노령화지수(2007년 노령화지수=55.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성비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65세-69세 노인인구의 성비는 61.76이지만 75세-79세 노인인구의 성비는 54.3(2000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을 보이고 있어서, 노인문제가 점점 여성노인 문제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사 이래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인인구가 집단적으로 공존했던 경우는 찾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노인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며, 노인들 역시 자신들의 집단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할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살아 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 갈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노인들에게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집단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그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시간사용 패턴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것은, 노인 각자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사용 패턴이 집합적으로 형성될 경우,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로 고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노인 역할의 정립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오늘날 노인들이 행하고 있는 역할을 탐색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간

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택하여 노인의 활동별 시간사용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간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는 관점이란 각 개인의 시간사용 속에는 개인이 행하는 역할에 대한 자아성찰이 내포되어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에 대한 해석은 자신을 정의하고 행동을 이끌어 가는 주요기제의 역할을 하며, 개개인은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대표적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현재의 행동은 과거의 그것과 연결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과도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는 관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 날 우리나라 노인들의 시간사용 군을 Rosow(1976)의 역할유형에 대입시켜 분류한 후, Rosow가 역할유형과 함께 제시한 가설, 즉 제도적(institutional) 역할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희박한(tenuous) 역할은 증가하며, 비공식적(informal) 역할은 그 변화가 크지 않다는 가설을 검증해 볼 것이다. 이와 함께, Rosow의 연구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던 노인 역할유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 여부와 그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노인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성노인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시간 사용(time use)에 관한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1)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과 과정으로서의 시간의 관점

4가지 분류 중 과정으로서의 시간의 관점은 시간사용과 사용자의 정체성 혹은 역할과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간사용의 잣대를 가지고 노인의 역할을 분류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의 관점을 연구의 기본 관점으로 삼았다.

(2) Rosow의 역할유형 (지위와 역할과의 관계)과 가설

<지위-역할의 조합에 의한 여러 가지 역할유형>

역할유형	지위	역할
1. 제도적(institutional)	+	+
2. 희박한(tenuous)	+	-
3. 비공식적(informal)	-	+
4. 무역할(non-role)	-	-

Rosow는 무 역할을 제외한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역할의 중요성이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며 각 역할마다 다른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의 9개 군으로 나눈 원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 각각과 관련된 활동들에 사용한 시간의 총량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과정으로서의 시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각 활동 군별 사용시간의 총량은 개인의 정체성 및 역할에 따라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할 것이므로 Rosow의 역할유형처럼 인생주기를 통해 다른 형태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의 기본 가설을 세웠다.

3.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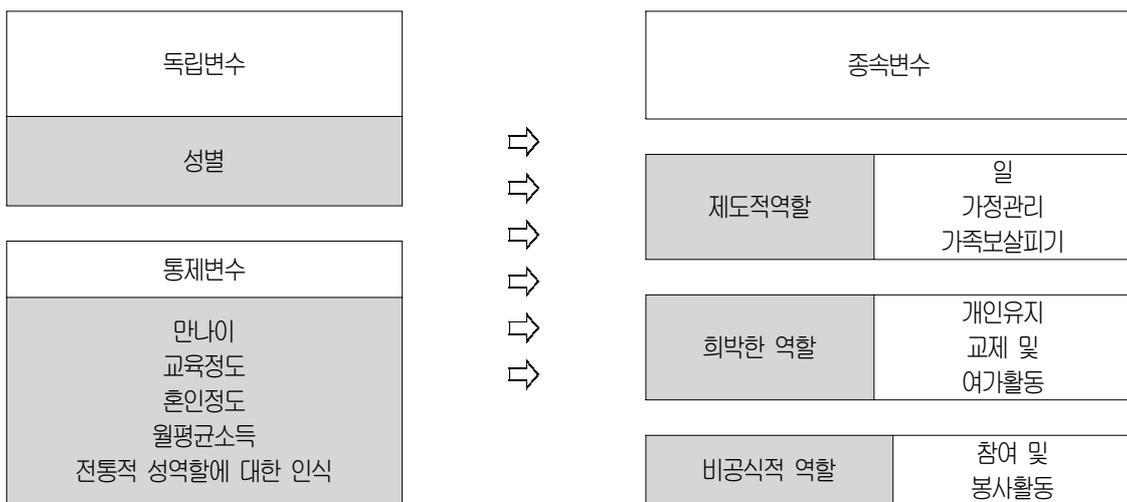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 군 별 시간사용량을 Rosow(1976)의 역할유형에 따라 분류한다면 그의 가설은 지지될 것인가?

둘째, 남·녀 노인들 사이에 Rosow의 역할유형에 따른 역할 상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연구모형 연구질문 2를 위한 회귀분석 시 필요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 연구모형>

3)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제도적 역할, 희박한 역할, 비공식적 역할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시 사용한 종속변수는 제도적 역할, 희박한 역할, 비공식 역할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사회조사(2004)의 2차 자료 분석법을 사용한 연구이므로 연구자는 사회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각 활동에 사용한 시간총량과 Rosow의 역할유형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원 자료의 9가지 활동 군 중 ‘이동’, ‘학습’, 및 ‘기타’를 제외한 6가지 시간사용 군을 종속변수의 하위차원으로 사용하였다. 이 6가지 활동 군을 다시 Rosow의 3개 역할유형 군으로 나누는 작업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Rosow 역시 지위나 역할의 유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분류가 Rosow가 제시한 역할유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에는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혹은 가정 내에서의 확고한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도적 역할로 분류하였고,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있어서 노인이라는 지위를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기대되는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희박한 역할로, 참여 및 봉사활동은 지위는 없지만 기대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역할로 분류하였다.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3가지 역할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각각으로 나누어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였고, 오늘 날 노인들에게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 량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습 역시 제외시켰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원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만나이, 교육정도, 혼인정도, 월평균소득, 전통적 성역할 인식정도(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과 혼인정도(미혼, 유배우, 사별 및 이혼)는 연속변수가 아니어서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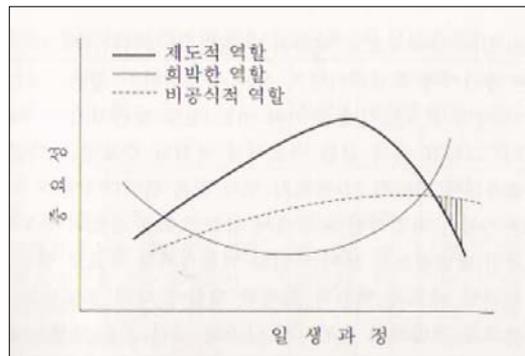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조사의 2차 자료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이 수집한 ‘2004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를 이용했으며, 6428명의 60세 이상 여성노인과 4480명의 남성노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version 13.0)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질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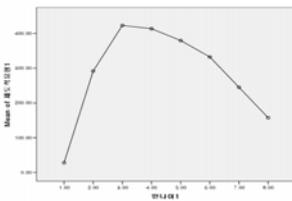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 군 별 시간사용량을 Rosow(1976)의 역할유형에 따라 분류한다면 그의 가설은 지지될 것인가?

<Rosow의 인생주기에 따른 역할유형의 상대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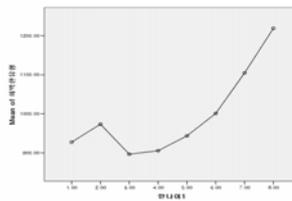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서 가설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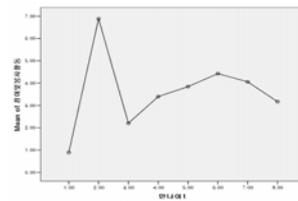
<연령대와 제도적역할>



<연령대와 희박한 역할>



<연령대와 비공식적역할>



2) 연구질문 2

노인들의 성별은 Rosow의 역할유형 변화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가?
분석결과, 다음 표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녀 노인 간 제도적 역할의 차이>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Tolerance	VIF
5	(상수)	815.563	20.111		40.553	.000		
	성별	-149.685	4.448	-.349	-33.651	.000	.620	1.614
	월평균소득	61.623	1.467	.384	41.995	.000	.800	1.250
	만나이	-6.640	.286	-.218	-23.235	.000	.756	1.324
	사별이혼	-66.525	4.335	-.151	-15.346	.000	.687	1.456
	교육정도	-2.231	.150	-.144	-14.875	.000	.713	1.402
a 종속변수: 제도적역할								

<남녀 노인가간 희박한 역할의 차이>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Tolerance	VIF
5	(상수)	413.783	20.785		19.908	.000		
	성별	144.206	4.597	.320	31.368	.000	.620	1.614
	월평균소득	-66.502	1.517	-.394	-43.850	.000	.800	1.250
	만나이	8.393	.295	.263	28.416	.000	.756	1.324
	사별이혼	64.197	4.480	.139	14.329	.000	.687	1.456
	교육정도	2.157	.155	.132	13.916	.000	.713	1.402
종속변수: 희박한역할								

<남녀노인 간 비공식적 역할의 차이>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Tolerance	VIF
1	(상수)	4.732	.375		12.637	.000		
	성별	-1.333	.584	-.022	-2.281	.023	1.000	1.000
종속변수: 비공식적 역할								

5.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Rosow는 비공식적 역할이 제도적 역할이나 희박한 역할에 비해서 노년기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역할유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인 개입을 한다면 제도적 역할과 희박한 역할에 대한 것보다는 비공식적 역할의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즉 희박한 역할에는 지위만 있을 뿐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년기에 점점 감소되어 가는 제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비공식적 역할의 중요성을 가지고 대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인의 비공식적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Rosow의 가설이 지지되었기 때문에 노인관련 정책을 입안 할 때 Rosow의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자원활동을 비롯한 비공식적 역할에 관해서는 그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만족을 위해서 역할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떠나서 노인들에게 역할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다면 고령화사회의 주인공인 노인들의 생활만족감은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상실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고, 자기유용성을 확인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며, 노년기의 소외감과 고독을 경감시키고, 노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등 다양한 효과성이 검증되어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자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고령화사회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계속 더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결국 여성노인화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으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인문제에 접근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 문제에 관한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여성들에게는 평생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온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있으며 비공식적 역할에의 참여가 남성들보다 활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남성노인 들은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가사 일에 힘을 보태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역할이 급격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남성노인들은 비공식적 역할을 수행해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 후 갑자기 비공식적 역할에도 뛰어들지 못한다. 때문에 주체 못할 정도로 긴 여가시간을 자신의 건강유지나, 교제 등에 할애할 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특히 노년기에 긍정적 효과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선뜻 그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봉사활동의 장으로 불러 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교제 및 여가활동은 희박한 역할로 분류하고, 참여 및 봉사활동은 비공식적 활동으로 분류했던 것은 노인들이 친구나 친지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정으로서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식의 여가활동시간들이 아무리 축적되어도 어떤 기대되는 역할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노년기 여가활동은 결국 비공식적 역할의 하나인 봉사활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봉사활동이 노인의 역할로 귀착될 때 노인의 사회통합에는 진전이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